

현 지형을 이용한 삼국시대 고분의 지형분석 연구

이진영¹, 양동윤¹, 김주용¹, 정계옥², 박준범³

Jin-Young Lee¹, Dong-Yun Yang¹, Ju-Yong KIM¹, Kye-Ok Jung², Jun-Bum Park³

¹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재해연구부, ²문화재청, ³한강문화재연구원
(¹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30 Gaj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350, Korea

²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139, Seonsa-ro, (920, Dunsan-dong), 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³Hangga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ICH), 486-1 Sangbong-dong,
Junglang-gu, Seseo-gu, Daejeon, Republic of Korea)

요 약

삼국시대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고분의 분포는 당시 인류의 매장습관과 지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형공간에 대한 정보관리와 공간분석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유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지원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산강유역에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고분을 대상으로 현 지형을 기반으로 분석된 삼국시대 고분의 입지지형 분석을 통해, 과거 삼국시대에 살았던 인류가 매장을 위해 활용한 지형적 특성을 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영산강 유역의 삼국시대 고분의 위치를 3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정리하였고, 고분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약 265개의 고분 및 고분군의 분포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고, 각 고분 및 고분군의 위치에 대한 지형특성(입지특성)을 분석하여 각 유적별 또는 시대별, 고도, 사면의 경사, 사면방향, 수계로부터의 거리, 유적의 분포밀도, 토양분류에 의한 선호지형에 관한 정보를 정량화하였다.

영산강 유역을 대상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해 입지분석 한 결과, 삼국시대 고분의 특징은 영산강 본류, 영산강 남해, 영산강 서해 유역에 대한 삼국시대의 고분의 분포특성과 시대별, 종류별, 유형별 특징을 해석하였는데, 특히 고분이 위치하고 있는 斜面의 傾斜와 水界로부터의 比高, 유적의 密度는 삼국시대의 고분을 특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한 수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일반적인 사실들에 대해 정량적 해석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사면의 방향은 시대별, 종류별, 유형별, 유역별로 뚜렷하게 선호하는 방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호되는 지형특성 또한 초기 4세기부터 활용된 지형보다 6세기 7세기로 시대가 변천되는 과정에서 고분이 분포하는 지형의 특성이 점차 다양해지는 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입지분석 결과의 활용이 각 유적에 적용될 경우 유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국지적 유적특성에 머물렀던 유적의 해석이 보다 광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해 지역별, 하천 유역별 특성을 비교분석한다면 삼국시대 고분의 입지환경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